

양계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기본 지침서가 되어라



강안종

(주) 미원사료사업본부
축산과학기술연구소
기술부 과장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업계를 선도해 온 「월간 양계」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헌을 몇가지만 간추려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축산 선진국의 앞선 사양기술 정보를 국내 양계인들에게 제공하여 양계산업의 종사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성

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둘째로 질병에 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양계인들이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치료를 함으로써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양계인들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세째로 양계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양계업의 실정이 양계인들만 생산성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양계산물의 가격을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유통상의 문제점을 「월간 양계」가 앞장서서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완벽하게 양계인들의 땀흘린 댓가를 받아 안정된 양계업을 영위하게 되고 생산성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되었으나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째로 양계산물의 소비홍보에 기여함이 크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의 양계 산물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양돈과 축우산물에 비해 저급상품으로 취급되거나 혹은 대체육으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일부 잘못 전달된 상식-성인병을 유발시킨다든가 혹은 한방에 악영향이 있다든가-으로 인해 소비추세가 둔화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상식을 적극적인 홍보로서 대처,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취약점은 먼저 안정적인 양계산물의 출하 및 적정가격 형성이 안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계산물의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은 계약생산으로 안정적인 양계경영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설비투자 의욕고취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방안으로 산란계의 경우 생산자들의 모임인 계우회 또는 조합, 그밖에 관련업체인 사료회사 등에서 G.P센터를 운영하여 신선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이 저급품이라는 인식에서 고급 식품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소비촉진을 위한 포장 디자인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한 요리방법과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육계의 경우 계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설비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도계 유통에서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이고 육계의 가공기술을 발전시켜 제품의 다각화로 소비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계산업의 현안문제를 「월간 양계」가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양계산업도 안정적인 성장이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